



1st Week February 2025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Vol. 27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자전거, 요금, 수립, 청년, 향로
경제·관광	항공, 농업인, 웨딩, 홍보, 생산
지역·사회	버스, 항공, 청소년, 공항, 눈

※ 분석 기간 : 25.02.06.~25.02.12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9-10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인프라 확충 계획 - 자전거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 - 자전거 문화 정착과 인식 제고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요금 정책 조정 -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요금 정책 - 항공 및 물류 요금 조정 논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 청년 지원 정책 기본계획 - 제주~칭다오 향로 개설 관련 정책 수립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 - 청년 참여 정책 활성화 -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향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칭다오 신규 향로 개설 논란 - 제주 향만 물류 확충 계획 - 향로 개설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11~12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 충돌 예방 강화 - 항공사 승무원 채용 확대 -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묘장 개방 및 영농 지원 - 농산물 수급 안정화 정책 추진 - 농업인 안전 강화
	웨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웨딩스냅 명소 부상 - 사계절 웨딩 촬영지로 인기 - 웨딩 관련 산업 확장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워케이션 활성화 홍보 강화 - 해외 관광객 유치 홍보 - 지역 특산물 홍보 확대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 생산량 감소와 대응책 - 농산물 생산 안정화 방안 - 친환경 농업 생산 확대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13~14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요금 인상 논의 - 청소년 버스 요금 무상화 요구 - 대중교통 체계 개선 논의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제2공항 추진 논란 - 전국신공항 백지화 연대 출범 - 항공기 운항 차질 발생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보호 순찰 강화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위탁 모집 -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원
	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공항 운영 개선 논의 - 비상구 개방 사고 발생 - 공항 리무진 버스 요금 조정 논의
	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폭설로 인한 피해 - 항공·해상 교통 차질 - 제주기상청 기상 예보 발표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목차

구분	국가별 정책동향 제목	
중국	전력 소비 구조를 통해 본 중국 산업의 고도화 발전	17
	상하이, 5억 위안 규모 소비쿠폰 발행	17
	중국 양수 발전소 개발 관리 규정 발표	18
	중국 국가 물류 허브 26개 추가 지정, 물류 네트워크 최적화	18
	중국 국무원, 소비 진작 및 외자 유치 대책 발표	19
	광둥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산업 체계 구축 가속화	19
	중국, 실버세대 관광열차 확대 추진	20
	랴오닝성, 산업 전환 및 내수 촉진 정책 발표	20
	신재생에너지 시장화 개혁,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	21
	중국 자본시장, 녹색 금융 제품 및 제도 확충 추진	21
	일본	도쿄 주오구, 쓰레기 감소 대책에 최대 400만 엔 지원
아이치현, 2025년 예산안 2.9조 엔…수소·신산업 지원 강화		22
얀마, 폐유니폼에서 수소 생성…신생기업과 협력		23
도쿄 23구, 방재 디지털 전환 가속화…AI·드론 활용		23
이바라키현, 자율주행 버스 운행 1주년…안전성 최우선		24
지역사회 DX 추진 지원…전문가 파견으로 인력 부족 해결		24
시즈오카 누마즈시, 닛산과 EV 활용 스마트 시티 조성		25
가고시마현, 2025년 예산안 8,527억 엔…농수산물 수출 확대		25
시마네현, 중소기업 자동화 투자 지원…예산 2.2% 증가		25
나가노시, 도쿄 기업과 협력…혁신 창출 프로젝트 추진		26
오이타, ‘하늘을 나는 자동차’ 2028년 상용화…관광 및 교통 혁신		26
나고야, 차세대 대중교통 SRT 도입…관광객 유치 전략		27
태국		태국 산업계, 중국산 수입품 급증 및 미국 관세 위협 대응 촉구
캄보디아	캄보디아, 메콩강 수자원 관리 강화 추진	27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아세안 내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대기오염 해결 위해 협력	30
필리핀	필리핀, 2024년 국가부채 16조 500억 페소 기록…경제 난관 직면	28
	필리핀, 인도·태평양 공정 무역정책 강화 촉구	28
	필리핀, 실업률 개선 위해 민관협력 강화 추진	28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글로벌 무역 긴장 속 2025년 GDP 성장 목표 달성 전망	29
	세계은행, 말레이시아 세수 확대 위해 GST 재도입 권고	29
베트남	베트남, 탄소시장 개발 계획 발표	29
	베트남, AI 산업 규제 프레임워크 정비를 성장 기반 마련	30

○ 중국

- ✓ 중국의 전력 소비 구조 변화는 산업 업그레이드의 핵심 지표로 작용, 첨단기술 및 장비 제조업 전력 소비 증가율이 10.3%를 기록하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속도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스마트 그리드 투자 확대 및 저장 시스템 개선 필요
- ✓ 상하이시는 2025년 소비 촉진 및 내수 확대를 위해 총 5억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 식음료, 관광, 영화, 스포츠 등 네 개 주요 생활 소비 분야에 집중 배포하여 경제 활성화를 기대
- ✓ 중국 정부는 양수 발전소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임시 규정을 발표, 전력 피크 조정 및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양수 발전소 운영을 최적화 하고, 환경 영향 평가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강화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국 26개 신규 물류 허브를 추가 지정, 물류 네트워크 최적화를 통해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물류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하고, 지역 경제 성장 지원을 목표로 설정
- ✓ 중국 국무원은 소비 촉진 및 외자 유치 대책을 발표하며, 주민 소득 증가, 대형 소비품 교체 지원, 외국 기업의 재투자 확대 유도 및 산업 구조 조정 등을 추진하여 경제 성장 촉진
- ✓ 광둥성은 첨단 제조업과 미래 산업의 고도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 반도체, 신에너지차, 스마트 로봇 등의 전략적 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기술 혁신 지원 계획 수립
- ✓ 중국 정부는 실버세대 관광열차 확대 및 서비스 소비 촉진 계획 발표, 전국적으로 노인 친화적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추진
- ✓ 랴오닝성은 산업 전환 및 내수 촉진을 위한 정책 발표, 전자상거래 공급망 개선,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청년 취업 지원 확대, 외자 유입 촉진 등의 경제 활성화 대책 포함

- ✓ 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시장 기반 가격 체계 구축, 전국 단일 전력 시장을 통해 전력 공급 효율성을 높이며, 정부 지원 정책 지속 강화
-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금융 상품 확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정비, ESG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정책 추진

○ 일본

- ✓ 도쿄 주오구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400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환경 미화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추진
- ✓ 아이치현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수소·암모니아 인프라 정비, 보육 및 간병 인력 확충,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
- ✓ 안마홀딩스는 폐유니폼에서 수소를 생성하는 프로젝트를 신생기업과 협력하여 추진하며, 순환 경제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
- ✓ 도쿄 23구는 방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AI 기반 피해 상황 파악, 재난 물류 관리 최적화, QR 코드를 활용한 비축물품 관리 등을 도입하여 대응력 강화
- ✓ 이바라키현 히타치시는 자율주행 ‘레벨 4’ 버스를 운행하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 실험을 진행하여 대중교통 혁신 가능성 검토
- ✓ 일본 총무성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DX(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전문가 파견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를 지원
- ✓ 시즈오카 누마즈시는 닛산과 협력하여 EV 충전소 확충 및 보급 지원, 재난 대비 전력 공급, 관광 EV 렌터카 도입 등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설정

- ✓ 가고시마현은 농수산물 해외 수출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며, ‘가고시마차’ 해외 판로 개척 및 국제 크루즈선 대상 수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
- ✓ 시마네현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생산성 향상 투자를 지원하는 신규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며, AI·DX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유도
- ✓ 나가노시는 도쿄 기업과 협력하여 혁신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수도권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사업 개발 촉진
- ✓ 오이타현은 2028년부터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상용 운행할 계획이며, 관광 및 도시 간 이동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 ✓ 나고야시는 차세대 대중교통 시스템 ‘SRT(Smart Roadway Transit)’를 도입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대중교통 혁신을 추진

○ 태국

- ✓ 태국 산업계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로 인한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 조치를 요구하며, 산업 보호 및 무역 정책 조정을 촉구

○ 캄보디아

- ✓ 캄보디아는 메콩강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국적 협력을 추진하며, 수자원 안보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
- ✓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내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추진

○ 필리핀

- ✓ 필리핀 국가부채가 2024년 16조 500억 페소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며, 정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추가 차입을 추진
- ✓ 필리핀 하원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정책 강화를 촉구하며, 다자간 경제협정 강화를 통한 무역 발전을 강조
- ✓ 필리핀 정부는 실업률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취업 지원을 확대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 경제부는 글로벌 무역 긴장 속에서도 2025년 GDP 성장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반도체 및 디지털 산업 성장을 촉진
- ✓ 세계은행은 말레이시아 세수 확대를 위해 GST(상품용역세) 재도입을 권고하며, 세금 제도를 개편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것을 제안

○ 베트남

- ✓ 베트남 정부는 탄소시장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법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9년까지 탄소시장 공식 출범 계획
- ✓ 베트남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정비하며, 글로벌 데이터 보호 기준 준수 및 책임 있는 AI 개발을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

Contents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1

언론분석: Word Cloud

- 2025년 2월 6일~2월 12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915건임
 - 정치·행정 분야 379건, 경제·관광 170건, 지역·사회 366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자전거, 요금, 수립, 청년, 항로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인프라 확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삼로와 연복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간선축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추진함. 상반기에 교통영향 분석과 수요조사를 거쳐 최적 노선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 · 전농로 사람중심으로 조성사업을 통해 보도 단차 제거, 녹지공간 확대, 가공선로 지중화를 추진하고, 2028년까지 33.5km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예정 - 자전거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출퇴근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청, 도의회, 교육청 공직자들에게 공유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사업을 통해 도민 200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구입 금액의 50% 이내)을 지원하여 보급을 확대할 예정 - 자전거 문화 정착과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강정마을 자전거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 · 전국 단위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행사 개최 및 자전거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도민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
정치·행정	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요금 정책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중교통 요금 정책 개편을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이 논의 -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요금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구입금액의 50% 이내)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보급률을 확대하려는 계획 - 항공 및 물류 요금 조정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칭다오와 제주 간 신규 항로 개설이 지연되면서 항공 및 물류 요금 변화가 예상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전용도로 도입과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교통영향 분석 및 수요조사를 통해 실행 방안을 마련 - 청년 지원 정책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참여기구가 조직되어 청년 원탁회의, 청년 주권회의 등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운영 -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관련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행정 절차와 영향평가 관련 정책이 논의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을 통해 근로 청년이 매월 50만원을 적립 하면 5년 만기에 3,0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운영 - 청년 참여 정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청년원탁회의’와 ‘제주청년주권회의’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 -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민간우주산업과 상장기업 육성,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포함
	항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가 영향평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주도와 중앙정부 간 논쟁이 지속 - 제주 항만 물류 확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 간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물류 인프라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실정 - 항로 개설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항로 개설이 완료되면 제주산 농산물, 삼다수, 화장품 등의 수출 증가와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항공, 농업인, 웨딩, 홍보, 생산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 충돌 예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공항에서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 확대 추진 · 제주공항 포함, 주요 공항에 열화상카메라 및 음파발생기 보급 - 항공사 승무원 채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웨이항공, B777 기장 및 부기장 채용 진행 · 항공업계 운항 인력 수급 문제 해결 시도 -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해외 홍보사무소를 통한 국제 항공 노선 활성화 ·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관광 시장 공략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묘장 개방 및 영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농업기술센터, 육묘장 개방해 자가 생산 지원 · 농업인 대상 교육 및 생육 관리 강화 - 농산물 수급 안정화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 지원 · 생산자연협회 가입 독려 및 수급안정 사업 확대 - 농업인 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원, 농업인 안전 리더 확대 및 교육 지원 ·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 안전 설비 도입
경제·관광	웨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웨딩스냅 명소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리메오름, 제동목장 입구 등 인기 촬영지 부각 · 웨딩스냅 촬영 수요 증가, 제주관광공사 관련 보고서 발간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요금 인상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11년간 동결된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점 추진 · 요금 인상 폭은 1200원에서 1500~1700원까지 검토되며, 인상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 - 청소년 버스 요금 무상화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단체는 청소년 버스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고등학생까지 무상화 확대를 촉구 · 현재 어린이 버스 요금은 무상 지원되나, 청소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 - 대중교통 체계 개선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버스 운영 비용 증가 및 재정 부담 증가에 따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운영 방안을 검토 · 거리 비례 요금제 및 급행버스, 공항리무진 버스 요금 조정안이 논의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제2공항 추진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제2공항과 관련하여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계획 보완 용역을 발주하며 사업을 재추진 · 기존 5개리 중심에서 성산읍 전역으로 범위를 확장하며 공항 복합도시와는 다른 방향성을 논의 - 전국신공항 백지화 연대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단체와 지역 대책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한 전국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반대하며 철회 촉구 · 전국 15개 공항 중 11개 공항이 만성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추가 공항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 - 항공기 운항 차질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공항에서 강풍과 폭설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 발생, 승객 불편 지속 · 기상이변으로 인해 공항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보호 순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도 활동 추진 ·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이 자주 찾는 장소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범죄 예방 노력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위탁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는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텔, 야영장) 운영을 담당할 단체를 모집하여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 · 청소년 건전육성과 복지증진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추진 -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 로타리클럽은 제주소년원에 장학금 및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 학업 의지가 있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공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공항 운영 개선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공항의 기존 시설 개선과 이용객 증가에 따른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기존 공항 활용률과 신공항 건설 논란이 병행되며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활발 - 비상구 개방 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발 김포행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덮개를 분리해 출발 지연 사태 발생 · 항공 보안 관련 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책 필요 - 공항 리무진 버스 요금 조정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공항 이용객을 위한 공항리무진 버스 요금 조정안을 검토 · 거리 비례 요금제 적용 및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 예정
	<p style="text-align: center;">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폭설로 인한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전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려 교통 마비 발생 · 주요 도로에서 차량 고립 및 사고가 이어지며, 긴급 구조 활동이 증가 - 항공·해상 교통 차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과 강풍으로 인해 제주공항 항공기 결항 및 여객선 운항 지연 발생 · 기상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이용객들은 사전 운항 정보 확인 필요 - 제주기상청 기상 예보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일부터 강풍과 함께 추가적인 눈이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20cm 이상 적설량 기록 · 기온 급강하로 인해 한파와 도로 결빙이 예상되며, 교통 및 안전 대비 필요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전력 소비 구조를 통해 본 중국 산업의 고도화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소비 구조 변화는 경제 성장과 산업 업그레이드의 핵심 지표로 작용. 2024년 중국의 전력 소비량은 9조 8,521억 kWh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8% 증가. 특히, 첨단기술 및 장비 제조업의 전력 소비 증가율이 10.3%로 전체 제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네트워크 차량 등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 - 중국 제3차 산업의 전력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정보 전송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의 전력 사용량이 11.9% 증가. 특히,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확산에 힘입어 전력 사용량이 21.7% 증가. 동부 지역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며, 중서부 지역은 산업 이전 및 정책 지원으로 인해 전력 소비가 빠르게 증가 - 중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전력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며, 여전히 화석 연료 기반 발전 의존도 지속.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망 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그리드 투자 확대, 저장 시스템 개선, 전력 소비 최적화 등의 기술 혁신 필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청정에너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 <p>○ 상하이, 5억 위안 규모 소비쿠폰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시는 2025년 서비스 소비쿠폰 발행 계획을 발표하며, 소비 촉진 및 내수 확대를 목표로 총 5억 위안의 예산을 배정. 이번 소비쿠폰은 식음료, 관광, 영화, 스포츠 등 네 개 주요 생활 소비 분야에 집중 배포될 예정이며,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 기대 - 세부적으로, 식음료 분야에 3.6억 위안, 관광에 9천만 위안, 영화에 3천만 위안, 스포츠에 2천만 위안이 배정됨. 소비자는 2월 22일부터 식음료 및 관광 소비쿠폰 신청 가능하며, 3월 1일부터 사용 가능. 모든 소비쿠폰은 6월 말까지 전량 발행 완료 예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쿠폰을 배포하며, 온라인 신청 후 무작위 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공정성을 강화. 영화 및 스포츠 소비쿠폰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기업 및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새로운 소비 패턴을 조성하여 소비 진작 및 내수 확대 기대
	<p>○ 중국 양수 발전소 개발 관리 규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양수 발전소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임시 규정을 발표하며, ‘생태 우선, 수요 중심, 최적 배치, 질서 있는 건설’ 이라는 원칙을 설정. 양수 발전소는 전력 피크 조정, 주파수 조절, 압력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전력망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 수행 - 2024년 말 기준, 중국 양수 발전소의 총 설비 용량이 5,800만 kW를 초과하며, 운영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국가 차원의 전력망 조정 및 지역별 수요 변화에 맞춘 최적 배치 필요. 양수 발전소는 기존 전력망의 효율적 운영을 돕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 이번 규정은 양수 발전소의 개발을 전력 시스템 지원 프로젝트와 특정 발전소 서비스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관리. 국가 차원에서 전체 규모를 조정하며, 개별 프로젝트는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방식 도입. 프로젝트 시행 전 환경 영향 평가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력 인프라 개발 목표
	<p>○ 중국 국가 물류 허브 26개 추가 지정, 물류 네트워크 최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 물류 허브 배치 최적화 계획’ 을 발표하며, 전국 26개 신규 물류 허브를 추가 지정. 이번 조정으로 국가 물류 허브의 총 개수는 229개로 증가하며, 152개 도시에 분포. 새로 추가된 물류 허브 중 60%는 중서부 지역에 배치되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국가 전략적 물류 거점 역할 강화 - 이번 조정은 ‘4횡(橫) 5종(縱), 2연(沿) 10랑(廊)’ 국가 물류 대통로 및 ‘10종(縱) 10횡(橫)’ 종합운송 대통로 등 주요 교통망과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연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물류 비용 절감과 물류 자원 통합을 통해 물류 운영 최적화 추진. 또한,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및 소비 시장과 연계하여 물류 허브의 역할을 더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물류 허브 조정으로 기존 물류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 성장 지원. 향후 물류 허브 네트워크의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철도, 내륙 항만 등 주요 물류 거점과 연결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
	<p>○ 중국 국무원, 소비 진작 및 외자 유치 대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소비 촉진 및 내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2025년 외자 안정화 행동 계획’ 을 승인. 소비 촉진을 위해 주민 소득 증가, 서비스 소비 확대, 대형 소비품 교체 지원 등 다양한 대책 마련.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한 3년간의 행동 계획 시행 예정 - 외자 유치를 위한 개방 확대 및 정책 지원 강화, 제조업 분야 외자 제한 전면 철폐,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확대 유도. 또한, 정부 조달, 금융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외자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외자 유입 촉진을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추진 - 산업 구조 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효율 생산능력 축소, 첨단 산업 육성, 시장 질서 개선 등의 조치 시행.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어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 국가 발전 계획을 법제화하여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p>○ 광동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산업 체계 구축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동성은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 2025년 행동 계획’ 을 발표하고, 첨단 제조업과 미래 산업의 고도화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 인공지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로봇 등 전략적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전환 가속화. 신산업을 주도할 인프라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투자 확대 및 기술 혁신 지원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실물경제 기반의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 방침에 따라, 광둥성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 주요 전략으로는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신흥 산업 투자 확대,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됨. 첨단 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국제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 강화 -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통합하는 구조 확립. 2025년까지 30개 이상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100개 이상의 신기술 및 신제품을 실용화하는 프로젝트 추진.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산업 선도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 계획
	<p>○ 중국, 실버세대 관광열차 확대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상무부 및 9개 정부 기관은 ‘실버세대 관광열차 확대 및 서비스 소비 촉진 계획’ 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전국적인 실버세대 관광열차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 실버 관광열차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주요 관광 노선을 연결하는 맞춤형 열차 상품 개발 추진 - 관광열차 운영 인프라 개선 및 효율 증대를 위해 기존 철도망을 활용하여 노선 최적화. 열차의 적응형 개조 및 노인 친화적 서비스 도입, 의료 지원 강화, 문화 공연 및 건강 관련 프로그램 포함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 민간 자본과 협력하여 지역 특화 관광 상품 개발 촉진 - 실버세대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 확대, 철도 및 관광 인프라 개발 강화, 맞춤형 관광 상품 확대 계획. 지방 정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실버 관광 시장 확대를 유도하며, 관광 경제 활성화 기대. 노인 친화적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책 마련 추진
	<p>○ 랴오닝성, 산업 전환 및 내수 촉진 정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랴오닝성은 ‘경제사회 안정 및 민생 지원 정책’ 을 발표하며,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산업 전환 및 내수 촉진을 위한 27개 조치 포함. 산업 업그레이드 가속화, 전자상거래 공급망 개선, 다중 운송 시스템 최적화, 친환경 에너지 산업 지원 등의 정책 포함

-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 출산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주민 생활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수소 경제, 스마트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 지원 확대. 고용 촉진을 위한 산업 재교육 및 창업 지원금 확대 계획
- 외자 유입 확대를 위해 기업 금융 지원 및 수출입 절차 간소화, 무역 장벽 완화 등의 정책 시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지원 확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마련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 필요

○ **신재생에너지 시장화 개혁,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국가에너지국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혁 방안’ 을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전면적으로 시장에 편입하는 개혁 추진. 기존 전력 가격 책정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기반 가격 체계를 구축하여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포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액 정산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낮은 전력 가격 시 정부가 지원하고, 높은 가격 시 차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력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 기존 발전소와 신규 발전소에 차별적 정책 적용하여 공정한 경쟁 유도
- 전국 단일 전력 시장 구축을 통해 전력 공급 효율을 높이고, 지역별 전력 소비 패턴을 반영한 최적화된 전력 배분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지속 강화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투자 확대 필요

○ **중국 자본시장, 녹색 금융 제품 및 제도 확충 추진**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 저탄소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전환 지원 방안’ 을 발표하며, 친환경 산업 및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녹색 채권, ESG 투자 확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융 지원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강화를 위해 ESG 정보 공개 의무화, 녹색 금융 상품 표준화 및 관련 제도 개선 추진. 기업이 친환경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녹색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 출시 계획 -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과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확대. 녹색 금융을 통한 친환경 산업 투자 촉진 및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유도를 위한 다각적 접근 필요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 주오구, 쓰레기 감소 대책에 최대 400만 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 주오구는 방문객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400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대상은 상점가 및 지역 단체로, 쓰레기 봉투 배포, 다회용 식기 사용 등 환경 미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원. 주요 관광지인 긴자와 쓰키지 장외시장 등에서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시행 - 이번 제도는 2025~2027년까지 3년간 시행되며, 2025년도 예산안에 2,000만 엔이 편성됨. 상점가와 협력하는 지역 단체도 보조금 신청 가능. 주오구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 - 주오구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 억제와 청소 활동을 지원하여 도시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이 정책을 통해 관광객이 많아도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 기대 ○ 아이치현, 2025년 예산안 2.9조 엔…수소·신산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치현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총액 2조 9,413억 엔 규모로 편성. 사회보장비, 인건비 증가 외에도 수소 및 암모니아 관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인프라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로 확대. 보육 및 간병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하여 사회적 요구에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암모니아의 사회적 활용 확대를 위한 예산 21억 엔 배정. 토요타 자동차 및 JERA와 협력하여 수소 공급망 구축 추진. 연료전지 트럭 및 버스 도입 지원, 수소 충전소 운영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시행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19억 엔 투자, 보육 및 간병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새로운 스포츠 시설 건립 지원 등 다방면에서 경제 및 사회 기반 강화 추진. ‘아이치를 더욱 위대하게’ 라는 목표 아래 일본 경제 성장의 핵심 지역으로서 입지 강화 계획
	<p>○ 얀마, 폐유니폼에서 수소 생성...신생기업과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얀마홀딩스는 폐기 예정인 작업용 유니폼에서 수소를 생성하는 프로젝트를 신생기업 BIOTECHWORKS-H2와 협력하여 추진. 화학 원료를 재활용하는 ‘케미컬 리사이클’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수소를 생산 - 얀마는 2024년 5월, 10년 만에 유니폼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식물 유래 폴리에스터 섬유를 도입하여 친환경성을 강화. 연간 폐기 예상량은 약 5톤이며, 이를 활용하여 2026년부터 약 300kg의 수소를 생산해 자체 수소 시설에서 활용할 계획 - 이 프로젝트는 순환 경제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됨.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산업 전반에 도입될 경우,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 높음
	<p>○ 도쿄 23구, 방재 디지털 전환 가속화...AI·드론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 23구는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방재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강화할 계획. AI를 활용한 피해 상황 파악, 재난 발생 시 물류 관리 최적화, QR 코드를 이용한 비축물품 관리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여 대응력 강화 추진 - 에도가와구는 화재 감지 AI 카메라를 고층 건물에 설치하고,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향후 200개소로 확대 예정. 스미다구는 비축물품 관리 시스템을 QR 코드로 전환하여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아라카와구는 방재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강화하여 피난소 정보 제공 및 긴급 신호 기능 추가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도는 2025년 예산안에서 방재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7.1% 증액한 8,161억 엔으로 설정. 방재 인프라 강화 및 기술 혁신을 통해 대규모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 체계 마련 목표.
	<p>○ 이바라키현, 자율주행 버스 운행 1주년...안전성 최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바라키현 히타치시에서 자율주행 ‘레벨 4’ 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지 1주년을 맞이. 전용 차선을 이용한 운행으로 안전성을 높였지만, 현재 운행 속도는 시속 15km로 기존 버스보다 10분 정도 더 소요 -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 주관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일반 도로와 11개 교차로를 통과하는 구조로 설계됨. 현재는 모든 승객이 착석한 상태에서만 운영되며, 자율주행 시스템 개선 후 효율성 증대 추진 - 향후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자동 정차 기능 개선, 신호 연계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 자율주행 기술이 대중교통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교통 체계 혁신과 고령층 이동 편의성 증대 기대.
	<p>○ 지역사회 DX 추진 지원...전문가 파견으로 인력 부족 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총무성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사회 DX(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 디지털 기술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도입 초기 단계 지자체에는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이미 DX 추진 중인 지역에는 체계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제공. 지자체와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 경제 활성화 추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부터 디지털 인력 중개 시스템 도입, 로컬 5G 기반 실증 프로젝트 지원, AI 및 IoT 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 사업 확대 예정.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대.
	<p>○ 시즈오카 누마즈시, 닛산과 EV 활용 스마트 시티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즈오카현 누마즈시는 닛산 및 관련 기업 4곳과 전기차(EV)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EV 충전소 확충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해 보급률을 높이고, 관광·재난 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추진 -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를 목표로 EV 보급 지원, 공공 인프라와 연계한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 추진. 재난 발생 시에는 EV 차량을 이동식 전원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체계 구축 - 관광 부문에서도 EV 렌터카 도입 및 지역 간 이동 지원 확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이동 수단을 정착시키는 프로젝트로 평가
	<p>○ 가고시마현, 2025년 예산안 8,527억 엔…농수산물 수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고시마현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총 8,527억 엔을 편성.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68억 엔을 책정. ‘가고시마차’의 해외 판로 개척 및 국제 크루즈선 대상 수산물 공급 체계 구축 지원 - 관광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해외 마케팅 추진, 온라인 여행사(OTA)와 협업한 개별 여행객 유치 사업, 신칸센 및 수상 교통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에 총 1.75억 엔 투자. 지역 특산품과 결합한 체험형 관광 모델 도입 - 출산·육아 지원 예산으로 501억 엔을 배정하여, 결혼 장려 및 육아 지원 정책 강화. 경제 성장과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
	<p>○ 시마네현, 중소기업 자동화 투자 지원…예산 2.2%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마네현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자동화·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생산성 향상 투자를 지원하는 신규 보조금 제도를 도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AI, DX(디지털 전환) 기술 도입을 장려하며, 관련 지원 예산 2.31억 엔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화 설비 도입 비용의 3분의 1(최대 150만 엔), 전문 컨설팅 비용의 3분의 1(최대 20만 엔) 지원.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 및 임금 인상을 목표로, 일정 기준 이상의 생산성 및 급여 인상 계획 제출 필수 -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업·지역 산업 발전 예산 781억 엔 배정.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주 환경 개선 및 복지 강화 정책 포함.
	<p>○ 나가노시, 도쿄 기업과 협력...혁신 창출 프로젝트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가노시는 2025년도부터 도쿄 소재 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혁신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 도쿄 시부야의 'SHIBUYA QWS' 와 연계하여 나가노 지역 기업과 수도권 기업 간 협업을 지원 - 기업 간 교류를 통한 신사업 개발 촉진, 외부 자원을 활용한 기업 혁신 유도. 도쿄와 나가노 간 협업 사례 확대를 위해 세미나 및 네트워킹 행사 개최 예정 - 시부야 QWS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나가노시 공무원 및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방과 수도권 간 상생 모델 구축 및 기업 성장 기회 확대 기대
	<p>○ 오이타, '하늘을 나는 자동차' 2028년 상용화·관광 및 교통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항공 모빌리티 기업 스카이드라이브는 2028년부터 오이타현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상용 운영을 시작할 계획. 별부~유후인을 약 15분 만에 연결하며, 관광 및 도시 간 이동 혁신 기대 - 2026년부터 대량 생산을 위한 '형식 인증' 취득 후 운항 준비 완료 예정. 장기적으로는 오이타오이타 공항 간 노선 확장 목표 - JR큐슈 및 오이타현과 협력하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차세대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나고야, 차세대 대중교통 SRT 도입…관광객 유치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고야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대중교통 시스템 ‘SRT (Smart Roadway Transit)’ 운영 개시. 나고야역~사카에 간 노선을 중심으로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요소 도입 - 관광객 대상 투명 디스플레이 및 3D 사운드를 활용한 안내 시스템 구축. 주요 관광 명소 정보 제공 및 도시 체험 요소 강화하여 관광 매력 극대화 - 무현금 결제 시스템 도입, 탑승 및 하차 방식 간소화 등 이용 편의성 개선. 향후 아시아 경기대회(2026년) 개최 시 나고야성 연결 노선 추가 계획
태국	<p>○ 태국 산업계, 중국산 수입품 급증 및 미국 관세 위협 대응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산업계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로 인한 저가 중국산 제품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보호 조치를 요구. 태국 산업연맹(FTI)은 정부의 개입 없을 경우 피해 업종이 2024년 23개에서 2025년 30개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 태국 제조업이 중국산 저가 제품 증가로 인해 위협받으며, 2024년 12월 공장 가동률이 56%로 하락. 같은 기간 공장 생산량은 5개월 연속 감소. 한편, 태국은 2024년 미국과의 무역흑자가 350억 달러에 달하며, 이에 대한 미국의 징벌적 관세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태국 상공업은행공동위원회(JSCCIB)는 무역 전쟁 심화와 태국 바트화 강세 등 경제적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9%로 유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보호 무역 정책과 산업 지원 대책 필요성 강조.
캄보디아	<p>○ 캄보디아, 메콩강 수자원 관리 강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는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해 메콩강위원회의 관리 강화를 촉구하며, 국가 수자원 안보 확보를 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실행 계획과 2024-2028년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하나의 메콩강, 하나의 정신'을 기조로 한 다국적 협력 강화 - 경제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초국경 하천 관리 강화를 위해 역내 및 국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아세안 내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대기오염 해결 위해 협력 -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협력을 논의하며, 지역 내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의지를 표명 - 플라스틱 봉투 사용 감축 및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해 청정 환경 조성과 공중보건 개선을 목표로 설정 - 아세안 협력 체제 하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추진 및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지속할 계획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2024년 국가부채 16조 500억 페소 기록..경제 난관 직면 - 필리핀의 국가부채가 폐소화 약세와 정부 차입 증가로 인해 2024년 16조 500억 페소(약 402조 원)로 전년 대비 9.8% 증가 - 국내 부채가 전체 부채의 68%를 차지하며 10조 9,300억 페소를 기록, 대외 부채는 5조 1,200억 페소로 집계됨. 정부는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 1조 3,100억 페소를 추가 차입 - 필리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0.7%로 정부 목표치를 소폭 상회하며, 2024년 경제성장률은 5.2%를 기록하여 2년 연속 정부 목표치를 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인도·태평양 공정 무역정책 강화 촉구 - 필리핀 하원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촉진을 위한 강력한 경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촉구하며, 경제적 취약성 및 지정학적 긴장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적 - 다자간 경제협정(RCEP, CPTPP) 강화를 통한 무역 발전 강조, 반도체·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핵심 광물·첨단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 언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준수 및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유지를 촉구하며, 중국의 군사화에 대한 경고 발언. <p>○ 필리핀, 실업률 개선 위해 민관협력 강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잡스트리트 커리어 콘 2025’에서 실업률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요 기업과 협력 강화 - 필리핀 통계청은 실업률이 2024년 10월 3.9%에서 11월 3.2%로 하락했다고 발표하며, 이번 채용박람회에서 1만 8,000명의 구직자가 취업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 - SM리테일, 네슬레, 메트로뱅크, 액센추어 등 130개 기업이 참여한 대규모 채용박람회에서 정부는 취업 서류 발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도입
말레이시아	<p>○ 말레이시아, 글로벌 무역 긴장 속 2025년 GDP 성장 목표 달성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경제부 장관은 글로벌 무역 긴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2025년 GDP 성장률 목표(4.5~5.5%)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링깃화 강세와 경제 회복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 - 정부는 무역·투자 정책 조정과 디지털·AI 산업 성장 촉진을 통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반도체 수요 증가를 기회로 활용할 계획 -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관련 법안을 2025년 3월 상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할 방침 <p>○ 세계은행, 말레이시아 세수 확대 위해 GST 재도입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은행은 말레이시아의 세수가 중하위 소득국가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상품용역세(GST) 재도입을 권고 - 현행 판매용역세(SST)를 GST로 전환할 경우 GDP의 1%에 해당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 -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사회 지원 및 GST 환급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며, 기업의 세금 준수 부담 완화를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위한 전환 기간 제공 강조
베트남	<p>○ 베트남, 탄소시장 개발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정부는 탄소시장 설립 및 개발을 위한 결정문 232호를 발표하며, 기업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설정 - 2025년 6월까지 법적·기술적 인프라 구축, 2028년까지 시범 운영, 2029년 공식 출범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 - 탄소시장은 베트남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약 4,730억 달러(약 691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베트남	<p>○ 베트남, AI 산업 규제 프레임워크 정비로 성장 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정부는 국가 AI 전략(2030)에 맞춰 AI 산업 육성을 위한 유연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중이며, 책임 있는 AI 개발 및 글로벌 데이터 보호 기준 준수를 위한 법안을 도입 - 디지털기술산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통해 AI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세금 감면 등)를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 -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기술기업의 투자 유치와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해 베트남을 AI 혁신 허브로 성장시키는 계획 추진

* 출처: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日本經濟新聞